

아모레, 판매채널 확대 “긍정적”

미래에셋, 프랜차이즈 솜으로 전환 ... 대량판매 시장 점유율 확대

미래에셋증권은 6월24일 아모레퍼시픽이 협력 판매채널 <휴플레이스>를 프랜차이즈 솜 <아리따움>으로 전환기로 한 것은 향후 시장점유율 확대에 긍정적이라며 <매수> 투자 의견과 목표주가 99만5000원을 유지했다.

한국회 애널리스트는 “아모레퍼시픽이 2004년부터 파트너십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화장품 판매점 브랜드 휴플레이스 점포 960개를 점주들과 협의해 9월부터 새로운 전문점 브랜드인 아리따움으로 프랜차이즈화하기로 했다”고 설명했다.

또 “아모레퍼시픽이 프랜차이즈 채널을 확보하게 되면 전체 화장품 시장의 25%에 달하는 대량판매시장(전문점·할인점)에서 점유율을 크게 확대하고 2위 화장품 생산기업들과의 시점점유율 차이를 더 크게 벌릴 수 있을 것”이라고 주장했다.

그리고 “판매채널 확대가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가격부담을 덜어주고 장기성장성 기대를 높여줄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06/24>